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(서면질문)

【도로과장 : 박명석 / 도로계획팀장 : 장운선 / 주무관 : 시설 7급 노권호】

연락처(☎) : 2600-6409

고재익 의원 구정질문 내용

4.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강서구의 역할 및 혜택은?

□ 답변내용 ----- (도로과)

-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강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국회대로길인 신월IC에서 여의대로 간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(도시기반시설본부)에서 약 지하 70m에 소형차 전용 왕복4차로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로서,
 - 그 동안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심의에 다소 기일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, 금년 8월 심의를 완료하고, 9월 17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0월 중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.
-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국회대로 지상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
 - 신월IC에서 화곡고가까지(L=1.6km)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2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2019년말 준공예정이고,
 - 화곡고가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(L=6.0km) 2단계 사업은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.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역할은 48년 동안 단절된 강서·양천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,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등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또한 혜택으로는 대기 및 소음등 환경오염이 저감되고 교통편의 제공으로 지역 자산가치 상승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(서면질문)

【기획예산과장 : 최 혁 / 예산팀장 : 김형연 / 주무관 : 행정 7급 손승현】

연락처(☎) : 2600-6061

고재익 의원 구정질문 내용

7.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향은?

□ 답변내용 ----- (기획예산과)

-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경영성과 저조, 직원 비위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,
- 시설관리공단의 특별감사와 관련 공단이사장의 특별감사 진행사항 등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시설관리공단의 특별감사 실시배경을 살펴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비위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단 자체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 2차(1차 : 2015. 1.28~1.30, 2차 : 2015.3.9~3.25)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나,
- 위 감사결과가 미흡하여 재조사 및 추가조사 등 지시에 의하여 2015. 4.14~4.22까지 기본연봉 임의조정, 허위공문서 작성,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10개분야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면밀히 추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,
- 그 결과 기본연봉 임의조정, 허위공문서 작성, 허위문서 작성 및 예산집행 등

6개분야는 비위사실 확인, 공부방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사용 등 3개분야는 비위사실 없음,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분야는 금품제공자의 진술거부 및 증거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조사를 보류하였으며,

- 비위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6명 전원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2015. 4. 30. 동 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자 6명중 2명은 정직 1~2월, 1명은 견책,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으며, 이외 품위유지 위반자(성관련 문제 야기직원)에 대하여 2015. 1. 9. 정직 6개월 징계처분 하였습니다.
-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공단 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대부분 완료하였습시다만, 허위공문서 작성분야의 경우 비위행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고발 및 재정상 조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사회 상정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.
-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 하루빨리 책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